선거 앞두고…지자체장 주민과 대화 '양날의 칼'

"현역 프리미엄 최대 활용" vs "선거법 위반 소지"

단체장 선관위에 문의 잇따라… 경쟁자는 예의 주시

6·13 지방선거를 5개월 앞두고 광주·전남지역 일부 기초자치단체가 잇따라 '주민과의 대화'를 열고 있어 선거관리위원회와 출마 예정자들이 선거법 위반 여부 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16일 광주시와 전남도 일선 기초단체에 따르면 광주지역 일부 구청과 전남지역 일부 시·군은 '주민과의 대화'를 개최하고 있다.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 현역 기초단체장들이 앞다퉈 '주민과의 대화'를 나서는 것은 마지막 현역 프리미엄을 최대한 활용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하지만, 주민들을 만나는 과정에 자칫 선거법 등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각 자치단체는 조심스러운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각 자치단체들은 선거법 위반 소지를 없애기 위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세부 상황을 문의하거나 감수까지 받아가며 주민과의 대화를 진행중이다.

'주민과의 대화'는 올해 자치단체의 주요 업무계획과 각 읍·면·동의 현안사업을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지역발전 아이디어와 정책제안, 건의사항을 듣는 자리다.

광주에서는 동구가 지난 8일부터 25일까지 13개 동을 순회하며 '2018년 주민과의 대화'를 열고 있다.

동구는 주민의견을 접수 받아 진행하고 있으며, 진행시간도 대폭 단축하고 간소하게 진행중이다.

전남에서는 장흥군이 지난 12일부터 '군민과 소통하는 연두순방'을 시작해 오는 25일까지 읍·면을 돌며 '주민과의 대화'를 연다. 장흥군은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통해 주민 홍보물을 배포할 수 없어 군정 성과와 올해 군정 사업 계획 등을 PT(프레젠테이션)로 대체했다. PT내용 역시 혹시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 부분은 선관위 감수를 받아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인규 나주시장도 현재 주민과의 대화를 진행하고 있으며, 구충곤 화순군수 역시 '군민과의 행복공감 대화'를 하고 있다.

주철현 여수시장도 해마다 연초에 해왔던 '시민과의 대화'를 이날부터 시작했지만, 선거법 위반을 고려해 방식을 바꿨다. 시가 주도하는 '시민과의 대화'는 선거법 위반소지가 있다는 선관위의 해석에 따라 주민이 주도하는 '주민 주도 토론회' 형식으로 변경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법상 선거일 60일 전인 오는 4월14일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금지됨에 따라 광주·전남지역 다른 일부 기초단체도 이 기간 내에 주민과의 대화를 계획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 선관위 관계자는 "단체장이 주민을 대상으로 군정성과 등을 보고할 수 있으나 홍보 인쇄물 등을 배포할 수 없다"면서 "주민과의 대화는 선거일 60일 전까지 가능하다"고 말했다.

현직 시장과 군수들은 6월 지방선거 전 실시되는 당내 경선을 앞두고 현직의 최대 프리미엄인 주민과의 대화의 행사를 통해 합법적으로 지역구 주민과 스킨십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여서 경쟁 후보 측은 긴장할 수 밖에 없다.

이에 따라 일부 경쟁자들은 주민과의 대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을 불법·탈법 행위에 대비해 동태파악에 나서는 등 촉각을 세우고 있다. 선관위도 행사과정에 자치단체장들의 선거법 위반 등의 행위가 있을지 여부에 대해 눈여겨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광주 동구(청장 김성환)는 16일 동명교회 드림홀에서 '주민과의 대화'를 개최하고 구정 주요 업무계획, 현안사업들을 설명하는 한편 주민들의 구정발전 아이디어, 정책제안,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광주동구청 제공〉

광주시, 5·18특별법 국회 통과 촉구 서명운동

온라인·길거리 서명 병행

헌법 수록 촉구 성명서도

광주시가 5·18진상규명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대국민 서명운동을 한다.

광주시는 16일 시청 3층 회의실에서 윤장현 시장 주재로 이개호, 천정배 국회의원, 이은방 시의회 의장, 장휘국 시교육감, 5·18단체를 비롯한 민주화운동단체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또 최근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회의 최종자문안에 5·18정신이 누락된 것과 국회에서 진상규명특별법 통과가 지연되고 있는 점을 규탄했다.

대국민서명운동은 온라인과 병행해 2월 말까지 진행된다. 참여는 5·18기록관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또한 광주시청 1층 시민숲과 송정역, 금남로 지하상가 등에서도 서명운동 부스를 설치해 길거리 서명운동을 함께 전개한다.

'5·18진실규명대책위'는 서명운동이 종료된 후 국회와 정부에 이를 전달할 예정이다.

또 광주시 등은 이날 5·18 헌법수록 및 진상규명 특별법의 국회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서도 발표했다.

'5·18진실규명대책위'는 성명서를 통해 국회가 ▲헌법개정 시 5·18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수록 적극 협조 ▲5·18 발포명령자 등 미완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국회 통과에 적극 협조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윤장현 광주시장은 "5·18정신은 1987년 6월 항쟁과 지난해 촛불혁명으로 계승된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역사이지만, 38년이 되도록 시민들에 대한 집단발포 책임자가 밝혀지지 않는 등 현재의 아픔이기도 하다"며 "5·18의 진실이 규명되고 5·18정신이 헌법에 계승돼 민주정부 존립의 가치로 우뚝 설 수 있도록 광주시민을 비롯한 전 국민이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광주 민간공항, 무안공항으로 이전·통합 거듭 강조

윤장현시장 확대간부회의서

윤장현 광주시장이 광주공항의 민간공항을 무안공항으로 이전·통합하는 문제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윤 시장은 16일 광주시청 확대간부회의에서 "광주시는 무안공항 활성화를 위해 민간공항 통합의 필요성을 누차 일관되게 강조한 바 있다"면서 "갇혀진 생각에서 벗어나 열린 생각을 가지고 (광주공항 민간공항 이전의) 전향적인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무안공항으로 통합됐을 때를 대비해 광주시민이 무안공항을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 인프라 등 제반여건 등도 함께 고민해 줄 것을 주문했다.

윤 시장은 "광주시는 광주·무안공항 통합이 탄력받기 위해서는 무안공항의 활성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으며 이를 위해 광주시는 적극 나서겠다"면서 "일본 기타큐슈와 중국 광저우, 상하이 등 정기노선 취항 및 알뜰항공사 설립에 대해서도 검토하는 등 무안공항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으로 준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무등경기장 야구장 리모델링 본격 추진

25억원 들여 이달중 설계용역

아마야구장 2020년까지 완공

광주 무등경기장 야구장 리모델링이 본격 추진된다.

광주시는 16일 "무등경기장 야구장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행정안전부 중앙투·융자심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이달 중 25억원을 들여 설계용역에 착수하기로 했다"면서 "연말께 설계가 마무리되는 대로 리모델링 공사에 들어가 2020년 말 완공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국비와 시비 등 458억원을 들여 야구장 일부 관람석을 철거하고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거쳐 새 아마추어 야구장을 만든다.

지하에는 2층 규모(1천252면) 주차장을 조성, 광주 KIA 챔피언스 필드의 고질적인 주차난을 해소하고 본부석에는 관리실과 함께 각종 편의시설과 클라이밍장을 설치한다.

내외야 관람석을 철거한 공간과 경기장 주변에는 풋살장, 다목적구장, 조깅트랙, 야외체육기구 등을 갖춘 체육 공간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밖에 웰빙 지압길, 산책로, 친환경 어린이 테마파크, 보행광장, 바닥분수, 소공연장을 조성한다.

애초 지난해 공사에 들어갈 계획이었으나 행안부가 중기지방재정계획 미반영과 재원 조달계획 미흡, 완공 뒤 수익시설 유치방안 마련 등을 지적하면서 제동이 걸렸다.

한편 무등산이 한눈에 보이는 광주 북구 임동에 자리 잡은 무등야구장은 1965년 세워져 1982년 프로야구 출범 이후 해태 타이거즈부터 KIA 타이거즈 홈구장으로 쓰였다. 2000년대 들어 낡은 시설과 잦은 부상 발생으로 선수들에게 기피대상이 되기도 했다.

이후 인근에 광주 KIA 챔피언스 필드가 건립되면서 2013년 10월 4일 경기를 끝으로 프로야구 경기는 더 열리지 않았다.

/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전남도, 인도 콜카타서 356만달러 수출 MOU

9개 수출업체 참여 성과

13억 시장 진출 청신호

전남도 시장개척단이 13억 인구 인도 시장을 뚫는다.

전남도는 지난 15일 인도 콜카타에서 수출 상담회를 열어 총 85건 356만 달러의 수출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우기종 정무부지사를 단장으로 한 시장개척단은 나주 좋은영농조합법인 등 총 9개 수출업체로 구성됐다.

시장개척단은 사전에 발굴한 바이어에게 미리 상담 품목을 알려준 뒤 현지에서 1대1 상담을 진행함으로써 계약 성과를 높였다.

특히 전남도는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콜카타에 시장개척단을 파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 부지사는 "우리나라 최초로 콜카다에 시장개척단을 보내 수출상담회를 연 만큼 생각지 못한 어려움도 많았다"며 "높은 성장 잠재력을 가진 콜카타 수출상담회가 13억 인구의 거대시장인 인도로 진출하는 발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